

2022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I. 2022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2년 4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요 약>

I. 2022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 전기 대비로는 1.5% 감소

- 2022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645억 달러) 대비 6.0% 증가했으나, 전분기(1,771억 달러) 대비로는 1.5% 감소한 **1,744억 달러**
-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를 지속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폭이 축소돼 전기 대비로는 감소 전환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중남미, CIS 등이 감소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p 하락한 90 기록

-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 채산성이 하락하고, 수출 물량도 하락해 전반적인 수출 업황 하락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90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92
수출단가 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115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129
수출물량 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89
자금사정 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93

- 수출채산성은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선박 등에서 하락, 문화콘텐츠, 플랜트/해건, 자동차 등에서 상승
- 수출물량은 선박, 기계류, 전기전자 등에서 하락, 신재생에너지, 해운 등은 상승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문화콘텐츠	해운	대기업	중소기업
'22.2Q	95	95	93	90	95	91	100	91	100	100	104	94	94
'22.3Q	89	89	89	79	95	91	95	94	98	95	104	96	89



II. 2022년 4분기 수출 전망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7.5p, 전기 대비 0.5p 상승

- '22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7.5로 전년동기 대비 7.5p 상승, 전기 대비로도 0.5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9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및 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경기 악화 예상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용 수입액 등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축소.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제조업 신규주문 등은 다소 위축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11.2	110.0	99.7	111.0	115.0	119.2	125.5	130.0	131.7	133.8	137.0	137.5
전년동기대비 증감(p)	△7.0	△3.0	△13.7	△2.8	3.9	9.2	25.8	19.1	16.7	14.6	11.5	7.5
전기대비 증감(p)	△2.6	△1.2	△10.3	11.3	4.1	4.2	6.3	4.5	1.7	2.1	3.2	0.5

원자재 · D램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 상승세 완화, 신규 주문 감소 등 경기 위축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장 둔화가 나타났으며 중국도 둔화세 지속, 반면 일본, 인도 등은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성장 트렌드 반영, 2010=100) : 164.2('21.4Q)→164.6('22.1Q)→165.4(2Q)→**166.4(3Q)**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 4.4('21.4Q)→2.7('22.1Q)→2.0(2Q)→**1.8(3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 분기 대비 3.8p 하락한 48.8을 기록하면서 기준선(50)을 하회해 경기 위축 가능성 심화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6.1('21.3Q)→60.6(4Q)→57.8('22.1Q)→52.6(2Q)→**48.8(3Q)**

- 가격 경쟁력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국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 강세는 더 심화돼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6.2% 상승한 달러당 1,388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57('21.3Q)→1,183(4Q)→1,205('22.1Q)→1,260(2Q)→**1,338(3Q)**



- **수출물가** :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고, 반도체 단가도 하락 전환함에 따라 수출물가는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0.4('21.3Q)→110.6(4Q)→112.6('22.1Q)→117.1(2Q)→**109.5(3Q)**
- **D램 가격**은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고물가 영향으로 정보기기(IT) 수요가 둔화되면서 2023년 까지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75('21.4Q)→3.50('22.1Q)→3.40(2Q)→2.80(3Q)→**2.54(4Q)**
-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속으로 당분간 배럴당 90달러대 수준에서 등락이 이어질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113.3(6)→**103.1(7)→96.6(8)→91.0(9)→91.3(10.19까지)**
- **주요 산업** :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 증가폭도 축소 되고, 글로벌 경기 하향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IT정보기기 수요도 둔화됨에 따라 주요 품목 수출 감소 전환 가능
-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로 늘어났던 노트북, PC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 전환됨에 따라 당분간 전년동기 대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자동차**는 친환경차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8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전기차 수출에는 차질이 나타날 전망

2022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 축소**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물가 하락 전환,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 내외 감소한 1,750억 달러** 수준 전망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3Q) 1,645 → **(4Q) 1,767**→('22.1Q) 1,734→(2Q) 1,771→(3Q) 1,744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3Q) 26.5→(4Q) 24.5→('22.1Q) 18.4→(2Q) 13.0→(3Q) 6.0
-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 등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돼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 **2022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 내외 증가하겠으나,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화환율 불안정'(52.1%), '원재료 가격 상승'(46.9%) 순 응답

-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39.7%→52.1%) 응답이 12.4%p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 대비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원재료 가격 상승**'(61.0%→46.9%) 응답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해상 물류 불안정**'(23.6%→12.3%),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10.2%→7.5%)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16.5%→13.1%) 등은 전기에 이어 감소 추세를 이어감.



I. 2022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 전기 대비로는 1.5% 감소

- 2022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645억 달러) 대비 6.0% 증가했으나, 전분기(1,771억 달러) 대비로는 1.5% 감소한 **1,744억 달러**
-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를 지속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폭이 축소돼 전기 대비로는 감소 전환
 -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對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D램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 축소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중남미, CIS 등이 감소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액	1,302	1,103	1,301	1,419	1,464	1,567	1,645	1,767	1,734	1,771	1,744
증감률(%)	△1.9	△20.3	△3.4	4.2	12.5	42.0	26.5	24.5	18.4	13.0	6.0
수출물가지수	91.8	87.5	90.5	93.7	99.8	107.0	110.4	110.6	112.6	117.1	109.5
증감률(%)	△8.2	△11.0	△5.5	△0.3	8.7	22.3	22.0	18.1	12.8	9.5	△0.8
수입물가지수	99.6	91.0	94.5	97.7	107.4	113.6	119.1	123.4	131.5	136.7	127.9
증감률(%)	△7.6	△15.6	△9.8	△5.9	7.9	24.8	26.1	26.3	22.4	20.3	7.5
수출물량지수	110.9	99.2	114.3	121.2	116.4	118.5	119.9	126.6	124.2	121.1	123.4*
증감률(%)	5.9	△10.0	3.0	4.9	5.0	19.4	4.9	4.5	6.7	2.2	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달러화 기준)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3분기 수출물량지수는 7~8월 평균



수출단가 하락 및 수요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 전환

- **반도체(△3.9%)**는 D램 가격 하락폭 확대, 낸드플래시 공급과잉,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용 IT제품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9분기만에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80('21.2Q)→3.96(3Q)→3.75(4Q)→3.50('22.1Q)→3.40(2Q)→**2.80(3Q)**
- **석유화학(△9.7%)**은 공급과잉 및 구매력 약화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자급률이 제고되면서 감소세로 전환
- **일반기계(△4.9%)**는 미국·아세안 등의 건설·인프라·설비 투자 확대는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對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 지속
- **자동차(31.4%)**는 전년동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수출 부진의 기저효과, SUV·전기차의 견조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 기록
- **석유제품(79.8%)**은 정제 마진 감소 등으로 정유사 가동률은 축소됐으나, 고유가 지속 및 여행수요 회복으로 인한 항공유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세 유지
- **무선통신기기(△14.5%)**는 주요 시장 수요 둔화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7월	8월	9월
반도체	14.0	29.7	36.3	34.6	29.0	13.6	△3.9	2.1	△7.8	△5.7
석유화학	26.1	80.0	64.0	54.1	26.3	7.0	△9.7	△2.1	△11.9	△15.1
일반기계	△1.4	21.1	15.8	9.9	5.5	△3.3	△4.9	0.7	2.3	△1.5
자동차	31.4	74.7	6.5	4.9	△0.4	6.8	31.4	25.2	35.9	34.7
석유제품	△17.0	110.3	71.6	113.7	90.7	90.8	79.8	77.8	113.5	52.7
선박류	28.2	11.8	△1.4	22.9	△45.3	△6.7	6.6	28.7	△25.8	15.5
무선통신기기	44.0	56.8	54.7	34.0	△1.1	△3.7	△14.5	△16.8	△20.8	△7.0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아세안은 호조세 유지, 중국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감소 지속

- **중국 수출(△4.9%)**은 상반기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반도체, 철강,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감소 기록



- **미국(14.8%)**은 고유가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출 단가가 개선되고 전방산업인 건설·자동차 등의 회복으로 석유화학 수출도 호조세를 보여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 지속
- **아세안(15.8%)**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수출이 증가하고, 석유제품 수출 단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수출 증가세 지속
- **EU(7.3%)**는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9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이 위축돼 수출 증가폭 축소
- **CIS(△16.7%)**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제재 및 물류 문제 등으로 차부품, 일반기계, 철강 등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기록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7월	8월	9월
중국	25.0	22.9	19.8	24.2	15.5	△1.0	△4.9	△2.7	△5.4	△6.5
미국	19.9	52.0	27.4	22.6	13.9	22.2	14.8	14.8	13.6	16.0
일본	△4.9	33.0	28.9	27.6	15.2	9.0	0.7	△2.5	2.2	2.5
아세안	△4.8	47.4	26.4	28.2	38.4	26.1	15.8	18.6	21.7	7.6
EU(27)	30.9	56.4	32.3	18.5	5.9	10.2	7.3	15.5	7.3	△0.7
베트남	6.3	43.2	13.6	12.2	30.7	16.2	△1.0	5.9	△2.5	△6.4
중남미	4.5	84.1	45.0	17.3	24.1	11.7	△4.9	△9.7	△4.2	△0.2
CIS	△13.8	39.2	31.3	27.4	5.4	△43.3	△16.7	△5.7	△10.7	△29.9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대비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물가 하락 전환

-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2분기 대비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정유제품 단가 상승폭이 축소되고, 반도체 단가도 전년동기 대비 **21.1%**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0.8%**, 전기 대비 **6.5%** 하락 전환
- 정유제품 단가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47.2%** 높은 수준이나, 전기 대비로는 **12.9%** 하락했으며, 철강제품 단가도 전년동기 대비 **11.1%** 하락하는 등 원자재 가격 영향이 큰 수출 품목들이 내림세로 전환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71.7('21.3Q)→ 78.4(4Q)→ 95.6('22.1Q)→ 108.1(2Q)→ **96.9(3Q)**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1차금속제품이 전기 대비 각각 **4.1%**, **11.0%**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7.5%** 상승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6.4%** 하락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p 하락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p, 전기 대비로도 4p 하락한 90
-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채산성이 하락하고, 수출물량도 하락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전분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생산원가(전기 대비 6p↓)가 하락했지만 수출단가(전기대비 4p↓)도 하락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은 전년동기 대비 3p, 전기 대비 2p 하락한 92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9p 하락, 전기 대비 8p 하락한 89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3p 하락, 전기 대비 1p 하락한 93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90
수출채산성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92
수출단가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115
생산원가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129
수출물량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89
자금사정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93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94p→96p)은 전기 대비 상승, 중소기업(94p→89p)은 하락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이 5p, 중소기업은 2p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은 대기업은 1p, 중소기업은 9p 하락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업황 위축을 더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 신재생에너지(91p→94p)는 업황 개선, 석유화학(90p→79p), 기계류(95p→89p)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은 문화콘텐츠(95p→110p), 플랜트/해건(93p→98p), 자동차(97p→99p) 등은 상승, 석유화학(89p→80p), 철강/비철금속(99p→92p), 선박(100p→93p) 등은 하락
- 수출물량은 신재생에너지(100p→119p), 문화콘텐츠(95p→100p), 해운(107p→111p) 등은 상승, 선박(105p→91p), 기계류(100p→89p), 전기전자(94p→83p), 철강/비철금속(97p→85p) 등은 하락

수출지역별 : 중남미(91p→108p)는 업황 개선, 일본(96p→76p), 중국(93p→87p) 등은 하락

- 수출채산성은 동남아(92p→93p)는 상승,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 수출물량은 중동(90p→92p)은 상승, 일본(98p→85p), 중국(92p→81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2. 2/4	3/4	'22. 2/4	3/4	'22. 2/4	3/4
전 체		94	90	94	92	97	89
규모	대 기 업	94	96	96	91	97	96
	중 소 기 업	94	89	94	92	97	88
산업	전 기 전 자	95	89	94	90	94	83
	기 계 류	95	89	93	90	100	89
	철 강 / 비 철 금 속	93	89	99	92	97	85
	석 유 화 학	90	79	89	80	90	79
	자 동 차	95	95	97	99	103	102
	섬 유 류	91	91	91	89	91	83
	플 란 트 / 해 외 건 설	100	95	93	98	103	88
	신 재 생 에 너 지	91	94	95	100	100	119
	선 박	100	98	100	93	105	91
	문 화 콘 텐 츠	100	95	95	110	95	100
	해 운	104	104	107	104	107	111
수출 지역	북 미	96	95	97	97	101	93
	중 국	93	87	92	85	92	81
	일 본	96	76	94	86	98	85
	유 로 존	94	93	94	93	101	94
	동 남 아	91	90	92	93	90	86
	중 남 미	91	108	95	85	109	108
	중 동	83	77	90	85	90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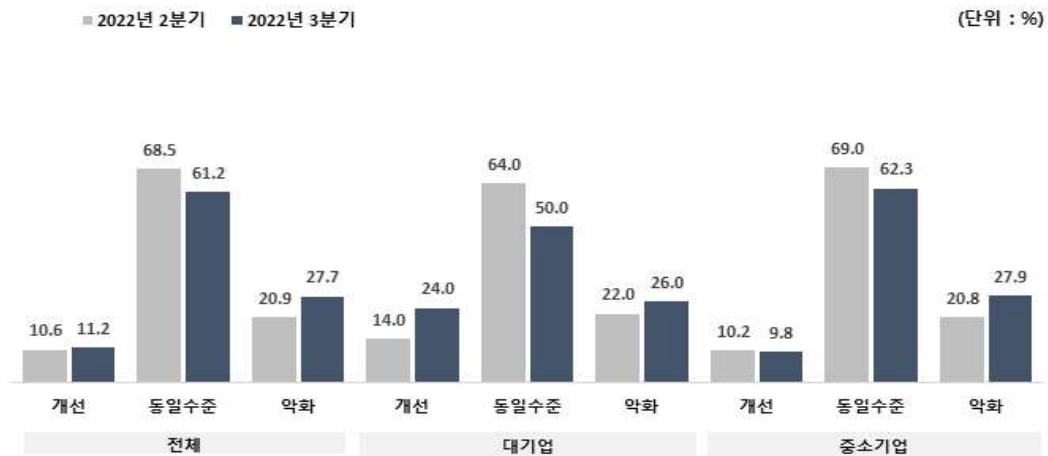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20개사)

수출업황 '개선' 11.2%, '동일 수준' 61.2%, '악화' 27.7%로 악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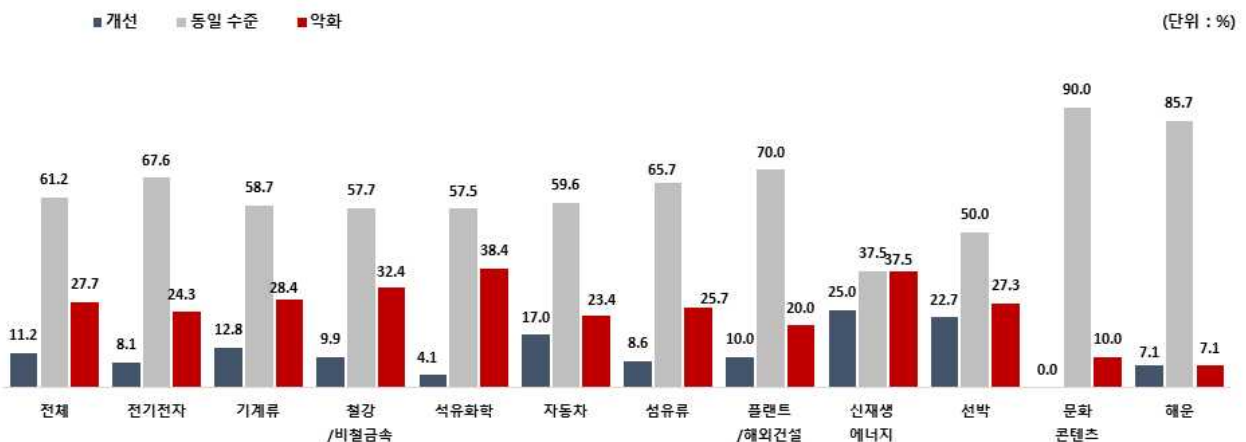
-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전기와 유사하나 '악화' 응답은 6.8%p 증가해 수출 업황 악화 우세
- (규모별) 전기 대비 '악화' 응답은 대기업 4.0%p, 중소기업 7.1%p 증가, '개선' 응답은 대기업 10.0%p 증가, 중소기업 0.4%p 감소해 중소기업의 업황 평가가 더 부정적

3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은 신재생에너지(9.1%→25.0%), 선박(13.6%→22.7%), 자동차(12.0%→17.0%) 등에서 증가, '악화' 응답은 철강/비철금속(22.2%→32.4%), 석유화학(28.8%→38.4%), 기계류(19.6%→28.4%) 등에서 증가

3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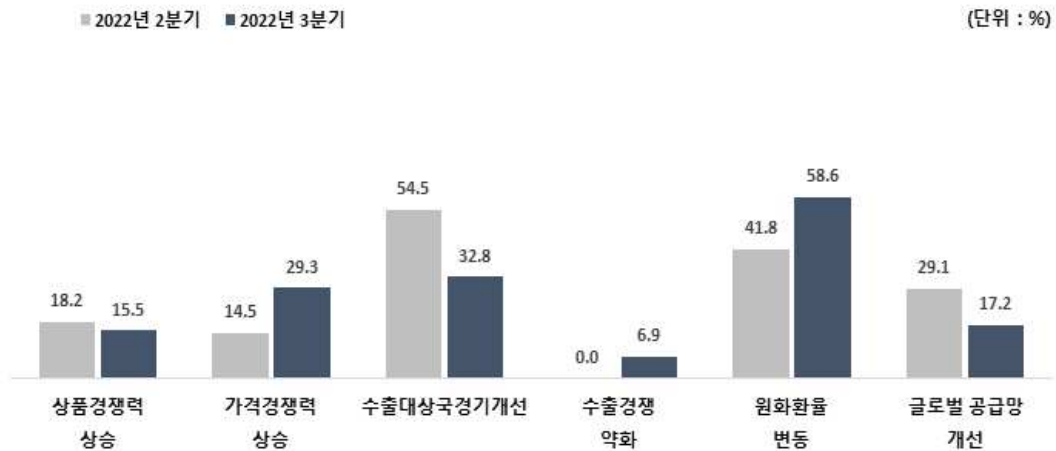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20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58개사, 복수응답)

'원화환율 변동' 58.6%,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 32.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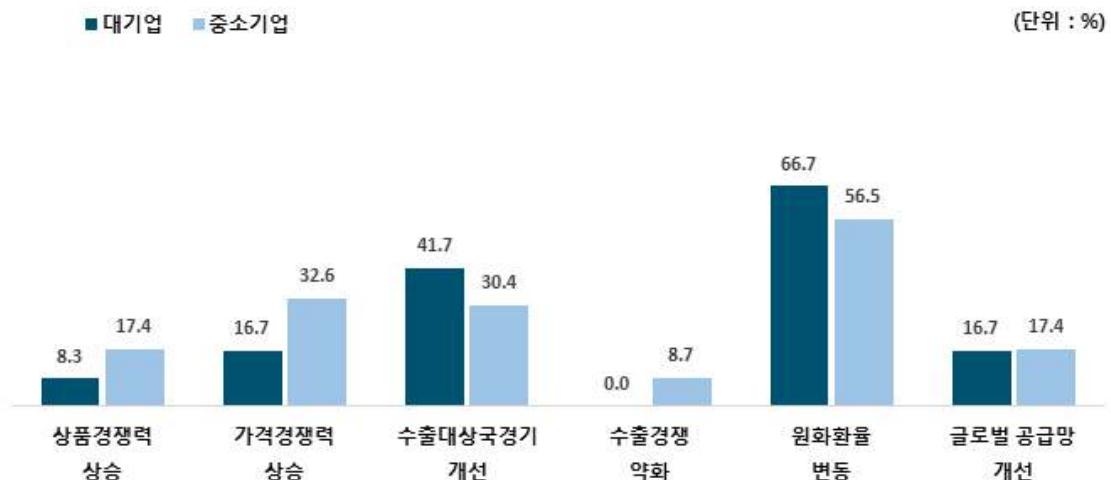
- 3분기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원화환율 변동'(41.8%→58.6%)이 최대 비중 차지, 전 분기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4.5%→32.8%)은 21.7%p 하락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원화환율 변동'을 각각 66.7%, 56.5%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 '비용구조 개선 등 가격 경쟁력 상승'(32.6%)을, 대기업은 '코로나19 완화 등 수출대상국 경기개선'(41.7%)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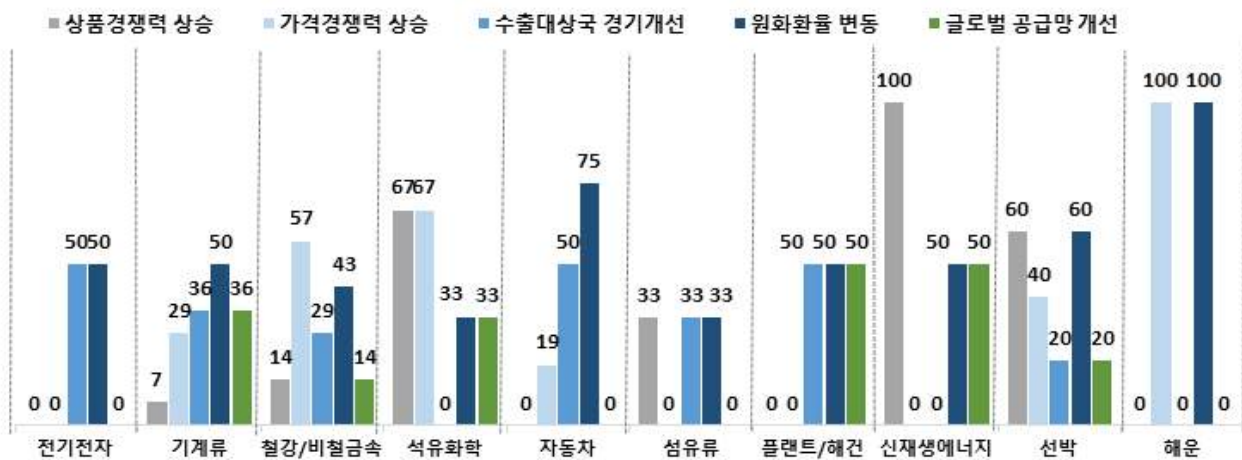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해운(100%), 자동차(75%), 선박(60%), 기계류(50%), 전기전자(50%) 등이 '원화환율 변동'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코로나19 여파 완화로 인한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은 전기전자(50%), 자동차(50%), 플랜트/해외 건설(50%)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비용구조 개선 등 가격 경쟁력 상승'은 해운(100%), 석유화학(67%), 철강/비철금속(57%) 등에서 높게 응답
- '상품 경쟁력 상승'은 신재생에너지(100%), 석유화학(67%), 선박(60%) 등에서 높게 응답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승	비용구조 개선 가격경쟁 상승	코로나19 완화 기대 개선	수출경 쟁 화	원화환 율 변 동	글로벌 공 급 망 선
전 체		15.5	29.3	32.8	6.9	58.6	17.2
규모	대 기 업	8.3	16.7	41.7	0.0	66.7	16.7
	중 소 기 업	17.4	32.6	30.4	8.7	56.5	17.4
산업	전 기 전 자	0.0	0.0	50.0	0.0	50.0	0.0
	기 계 류	7.1	28.6	35.7	7.1	50.0	35.7
	철 강 / 비 철	14.3	57.1	28.6	28.6	42.9	14.3
	석 유 화 학	66.7	66.7	0.0	0.0	33.3	33.3
	자 동 차	0.0	18.8	50.0	6.3	75.0	0.0
	섬 유 류	33.3	0.0	33.3	0.0	33.3	0.0
	플랜트/해건	0.0	0.0	50.0	0.0	50.0	50.0
	신재생에너지	100.0	0.0	0.0	0.0	50.0	50.0
	선 박	60.0	40.0	20.0	0.0	60.0	20.0
	해 운	0.0	100.0	0.0	0.0	100.0	0.0
수출 지역	북 미	4.5	18.2	40.9	4.5	68.2	13.6
	중 국	0.0	50.0	25.0	0.0	62.5	12.5
	일 본	0.0	0.0	100.0	100.0	0.0	0.0
	유 로 존	10.0	40.0	30.0	10.0	50.0	40.0
	동 남 아	45.5	27.3	27.3	0.0	54.5	9.1
	중 남 미	20.0	40.0	20.0	20.0	60.0	20.0

주 : 전체 설문 520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58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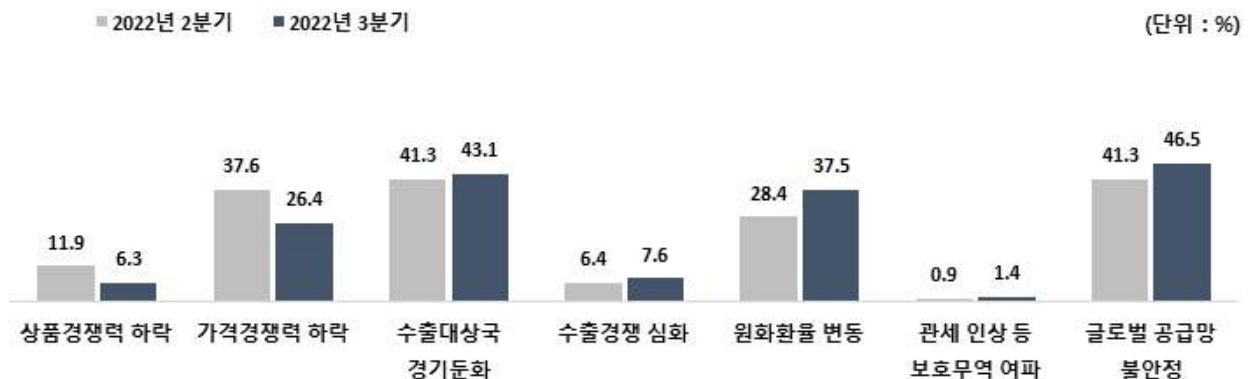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20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44개사, 복수응답)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6.5%), '수출대상국 경기둔화'(43.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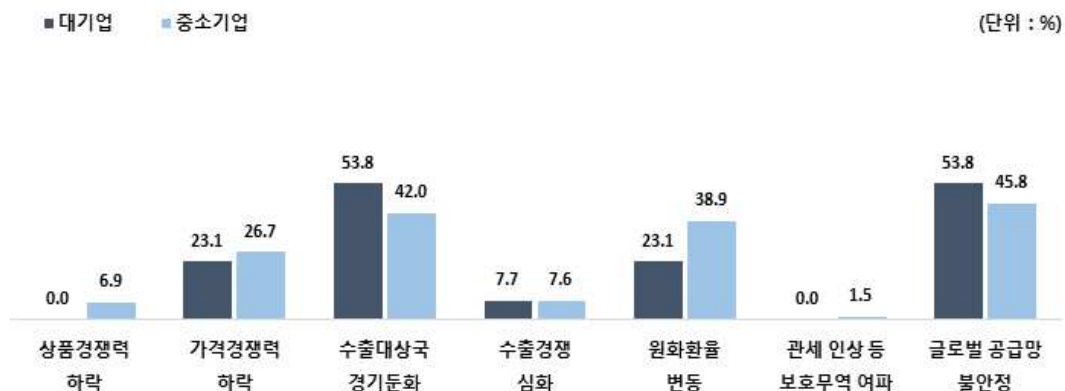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1.3%→46.5%)이 전기에 비해 5.2%p 상승하며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41.3%→43.1%) 순으로 응답
- (산업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신재생에너지(100.0%), 플랜트/해건(75.0%), 전기전자(61.1%), 자동차(50.0%), 기계류(48.4%) 산업에서 많이 응답
- '원화환율 변동'은 플랜트/해건(75.0%), 자동차(63.6%), 석유화학(50.0%), 선박(50.0%) 산업에서 많이 응답
- (수출지역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국(51.9%), 북미(48.6%), 일본(47.6%), 유로존(47.4%)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53.8%)과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3.8%)를, 중소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45.8%)을 가장 많이 선택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쟁 력 락	가 경 하	격 쟁 력 락	수 대 상 경 기 둔 화	수 경 심	출 쟁 화	원 환 변	화 울 동	관 세 인 상 등 보 호 무 역	금 공 불	로 급 안 정	별 망 정
전 체		6.3		26.4		43.1	7.6		37.5		1.4		46.5	
규 모	대 기 업	0.0		23.1		53.8	7.7		23.1		0.0		53.8	
	중 소 기 업	6.9		26.7		42.0	7.6		38.9		1.5		45.8	
산 업	전 기 전 자	0.0		11.1		72.2	0.0		5.6		0.0		61.1	
	기 계 류	3.2		25.8		54.8	6.5		29.0		3.2		48.4	
	철 강 / 비 철	13.0		17.4		47.8	4.3		30.4		4.3		39.1	
	석 유 화 학	10.7		46.4		25.0	14.3		50.0		0.0		35.7	
	자 동 차	4.5		22.7		27.3	4.5		63.6		0.0		50.0	
	섬 유 류	22.2		11.1		55.6	11.1		22.2		0.0		44.4	
	플 란트/해 건	0.0		25.0		0.0	0.0		75.0		0.0		75.0	
	신 재생 에 너 지	0.0		33.3		33.3	0.0		33.3		0.0		100.0	
	선 박	0.0		50.0		33.3	16.7		50.0		0.0		33.3	
	문 화 콘 텐 츠	0.0		100.0		100.0	0.0		0.0		0.0		0.0	
	해 운	0.0		0.0		0.0	100.0		0.0		0.0		100.0	
수출 지역	북 미	11.4		28.6		48.6	0.0		34.3		2.9		42.9	
	중 국	0.0		18.5		51.9	3.7		37.0		3.7		48.1	
	일 본	4.8		23.8		47.6	4.8		33.3		0.0		52.4	
	유 로 존	5.3		10.5		47.4	15.8		36.8		0.0		52.6	
	동 남 아	10.0		43.3		26.7	16.7		40.0		0.0		40.0	
	중 남 미	0.0		0.0		0.0	0.0		66.7		0.0		100.0	
	중 동	0.0		25.0		0.0	0.0		100.0		0.0		50.0	

주 : 전체 설문 520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44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II. 2022년 4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7.5p, 전기 대비 0.5p 상승

- '22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7.5로 전년동기 대비 7.5p 상승, 전기 대비로도 0.5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9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및 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경기 악화 예상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용 수입액 등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축소.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제조업 신규주문 등은 다소 위축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11.2	110.0	99.7	111.0	115.0	119.2	125.5	130.0	131.7	133.8	137.0	137.5
전년동기대비 증감(p)	△7.0	△3.0	△13.7	△2.8	3.9	9.2	25.8	19.1	16.7	14.6	11.5	7.5
전기대비 증감(p)	△2.6	△1.2	△10.3	11.3	4.1	4.2	6.3	4.5	1.7	2.1	3.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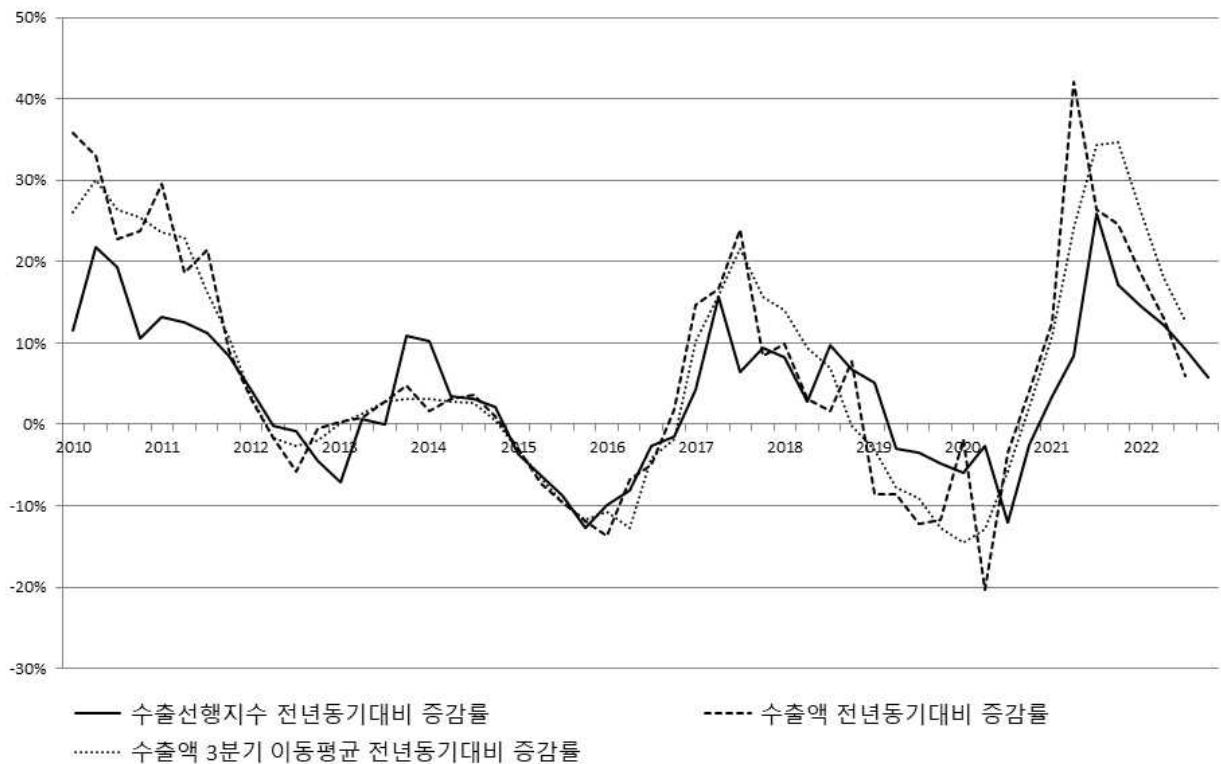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원자재 · D램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 상승세 완화, 신규 주문 감소 등 경기 위축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장 둔화가 나타났으며 중국도 둔화세 지속, 반면 일본, 인도 등은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성장 트렌드 반영, 2010=100) : 164.2('21.4Q)→164.6('22.1Q)→165.4(2Q)→**166.4(3Q)**

※ 수출대상국 경가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4.4('21.4Q)→2.7('22.1Q)→2.0(2Q)→**1.8(3Q)**

- WTO 상품무역지수 : 신규 수출 주문 및 항공 화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컨테이너 선적량 등이 늘어나 3분기 지수는 2분기와 유사한 100 유지

※ Goods Trade Barometer*(WTO) : 110.4('21.3Q)→99.5(4Q)→98.7('22.1Q)→99.0(2Q)→**100.0(3Q)**

* 2022년 6월=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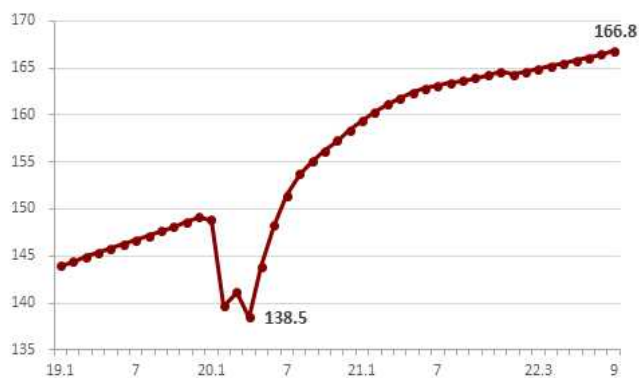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 분기 대비 3.8p 하락한 48.8을 기록하면서 기준선(50)을 하회해 경기 위축 가능성 심화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6.1('21.3Q)→60.6(4Q)→57.8('22.1Q)→52.6(2Q)→**48.8(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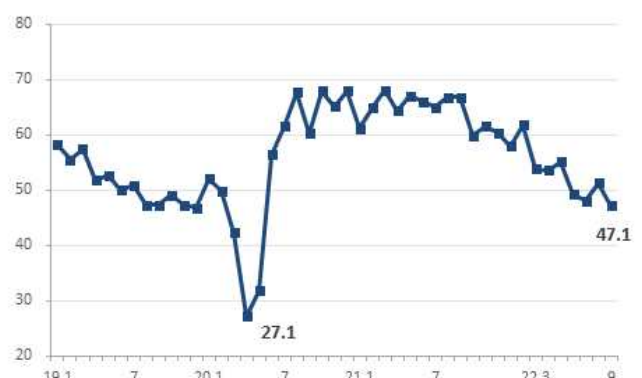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53.5('22.4)→55.1(5)→49.2(6)→**48.0(7)→51.3(8)→47.1(9)**

수출 대상국 경가지수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9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로도 6분기 연속 상승한 156.7을 기록했으나 원유·원자재 등 수입물가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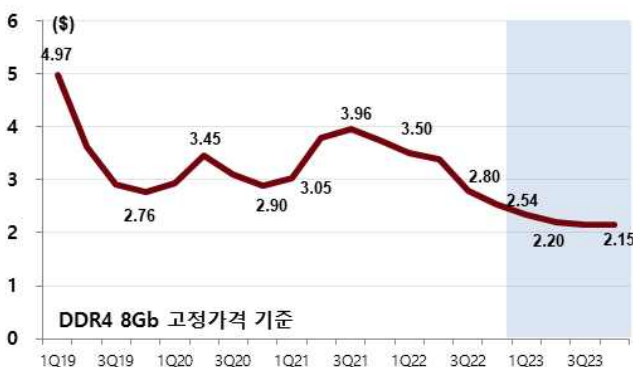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117.1('21.3Q)→126.9(4Q)→136.9('22.1Q)→150.8(2Q)→**156.7(3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62.6('21.3Q)→65.5(4Q)→51.1('22.1Q)→45.1(2Q)→**33.9(2Q)**



- 가격 경쟁력**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국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 강세는 더 심화돼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6.2% 상승한 달러당 1,388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미국 기준금리는 '22년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5%p 인상돼 연말 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달러 강세는 유지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57('21.3Q)→1,183(4Q)→1,205('22.1Q)→1,260(2Q)→**1,338(3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232('22.4)→ 1,270(5)→ 1,277(6)→ **1,307(7)→ 1,318(8)→ 1,392(9)**
- 수출물가** :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고, 반도체 단가도 하락 전환함에 따라 수출물가는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0.4('21.3Q)→110.6(4Q)→112.6('22.1Q)→117.1(2Q)→**109.5(3Q)**
 -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22.0('21.3Q)→18.1(4Q)→12.8('22.1Q)→9.5(2Q)→**△6.5(3Q)**
- D램 가격**은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고물가 영향으로 정보기기(IT) 수요가 둔화되면서 2023년까지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
 -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75('21.4Q)→3.50('22.1Q)→3.40(2Q)→2.80(3Q)→**2.54(4Q)**
-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속으로 당분간 배럴당 90달러대 수준에서 등락이 이어질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113.3(6)→**103.1(7)→96.6(8)→91.0(9)→91.3(10.19까지)**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2022. 9월)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 증가폭도 축소되고, 글로벌 경기 하향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IT정보기기 수요도 둔화됨에 따라 주요 품목 수출 감소 전환 가능



- **반도체**는 코로나 특수로 늘어났던 노트북, PC용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 전환됨에 따라 당분간 전년동기 대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 고가의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친환경차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8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면서 전기차 수출에는 차질이 나타날 전망
-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일정 부분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 현재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말까지 관련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수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 9월 미국 수출 전기차는 IRA 발효 이전 계약분.

2022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 내외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폭 축소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 물가 하락 전환,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내외 감소한 1,750억 달러** 수준 전망
 -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1.3Q) 1,645 → **(4Q) 1,767** → ('22.1Q) 1,734 → (2Q) 1,771 → (3Q) 1,744
 -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1.3Q) 26.5 → (4Q) 24.5 → ('22.1Q) 18.4 → (2Q) 13.0 → (3Q) 6.0
-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 확대** 등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돼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될**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 **2022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 내외** 증가하겠으나,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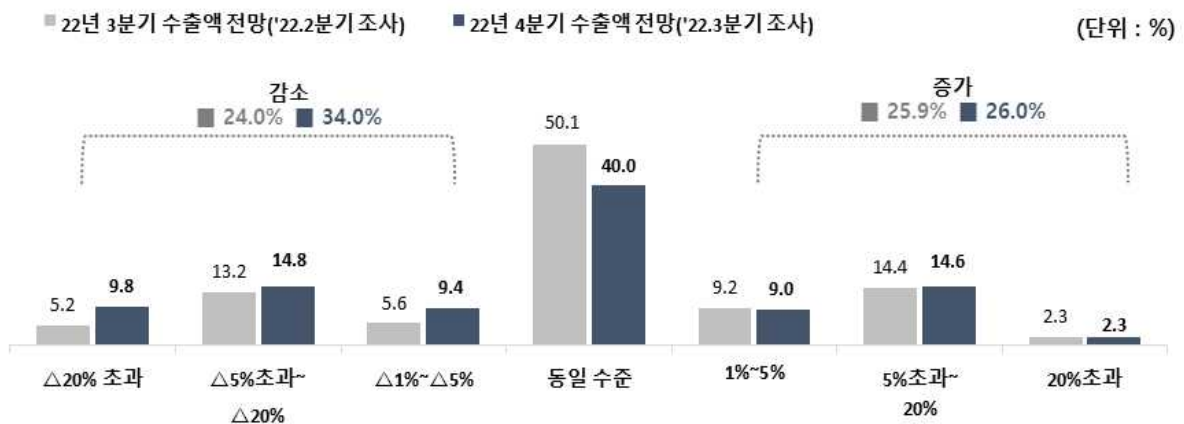


2. 수출기업의 '22년 4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20개사)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34.0%, '증가' 전망 26.0%로 '감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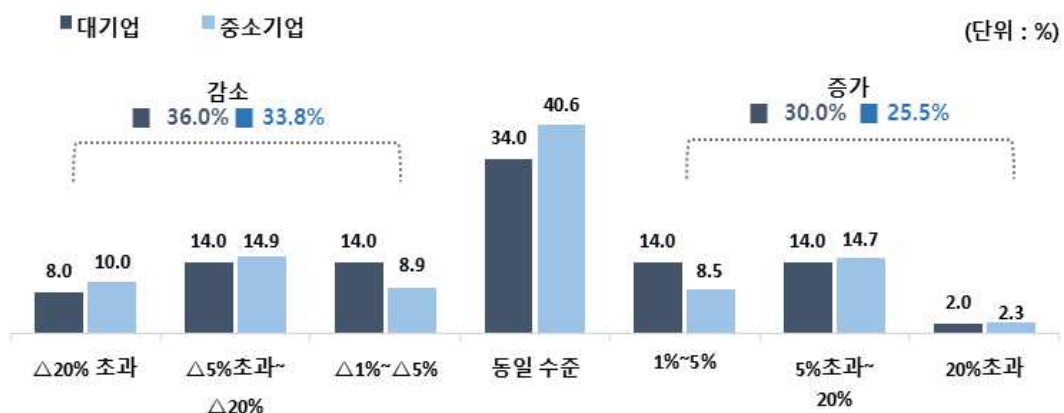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증가'(25.9%→26.0%)는 전기와 유사한 반면, '감소'(24.0%→34.0%)는 전기 대비 10.0%p 증가해 4분기 수출은 감소 전망이 우세
- '동일 수준' 전망 응답률(50.1%→40.0%)도 전기보다 10.1%p 감소

'22년 4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22.0%→36.0%)은 '감소' 전망이 전기에 비해 14.0%p 증가, 중소기업(24.2%→33.8%)은 9.6%p 증가해 대기업의 수출 전망이 중소기업보다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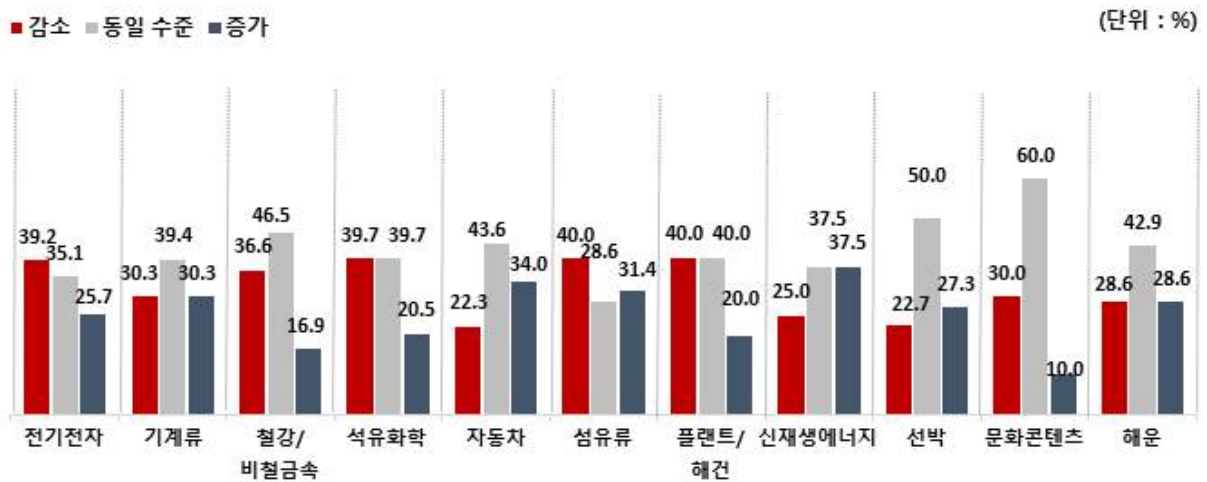
'22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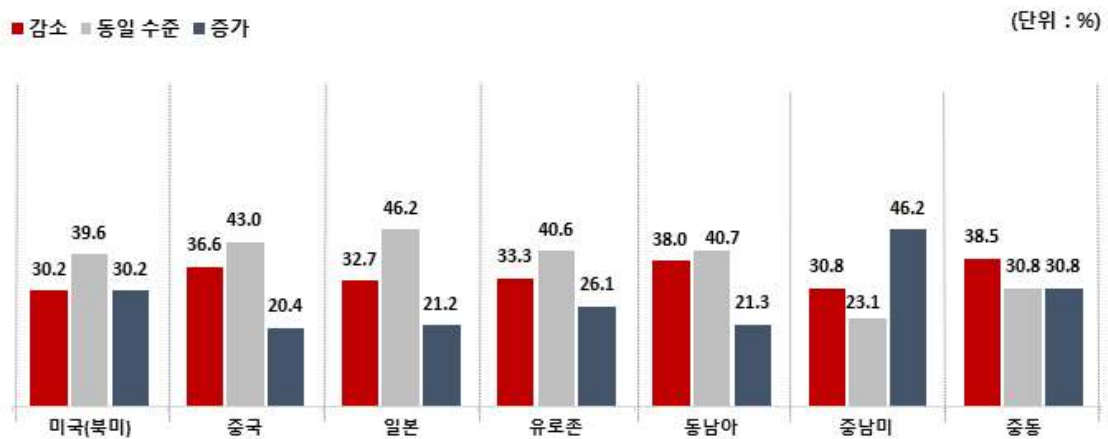
- (산업별) 플랜트/해외건설(40.0%), 석유류(40.0%), 석유화학(39.7%), 전기전자(39.2%), 철강/비철금속(36.6%) 등은 타산업 대비 '감소' 전망이 높은 편
- 전년동기 대비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은 신재생에너지(37.5%), 자동차(34.0%)

'22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중동(38.5%), 동남아(38.0%), 중국(36.6%) 등
- 반면 '증가' 전망이 높은 지역은 중남미(46.2%) 지역에 불과

'22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2년 4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9.8	14.8	9.4	40.0	9.0	14.6	2.3
규 모	대 기 업	8.0	14.0	14.0	34.0	14.0	14.0	2.0
	중 소 기 업	10.0	14.9	8.9	40.6	8.5	14.7	2.3
산 업	전 기 전 자	13.5	14.9	10.8	35.1	9.5	14.9	1.4
	기 계 류	11.0	13.8	5.5	39.4	10.1	19.3	0.9
	철 강/비철금속	9.9	14.1	12.7	46.5	1.4	12.7	2.8
	석 유 화 학	12.3	17.8	9.6	39.7	11.0	8.2	1.4
	자 동 차	4.3	9.6	8.5	43.6	11.7	20.2	2.1
	섬 유 류	5.7	28.6	5.7	28.6	11.4	14.3	5.7
	플 란 트 / 해 건	5.0	15.0	20.0	40.0	15.0	5.0	0.0
	신 재 생 에 너 지	25.0	0.0	0.0	37.5	12.5	12.5	12.5
	선 박	4.5	13.6	4.5	50.0	4.5	18.2	4.5
	문 화 콘 텐 츠	10.0	0.0	20.0	60.0	0.0	10.0	0.0
	해 운	0.0	21.4	7.1	42.9	14.3	14.3	0.0
수출 지역	북 미	3.4	14.8	12.1	39.6	10.1	15.4	4.7
	중 국	16.1	10.8	9.7	43.0	6.5	14.0	0.0
	일 본	11.5	11.5	9.6	46.2	7.7	9.6	3.8
	유 로 존	5.8	17.4	10.1	40.6	11.6	14.5	0.0
	동 남 아	13.9	18.5	5.6	40.7	7.4	12.0	1.9
	중 남 미	7.7	15.4	7.7	23.1	7.7	38.5	0.0
	중 동	15.4	23.1	0.0	30.8	7.7	23.1	0.0

주 : 총 520개사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화환율 불안정’(52.1%), ‘원재료 가격 상승’(46.9%) 순 응답

-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39.7%→52.1%) 응답이 12.4%p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 대비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원재료 가격 상승’(61.0%→46.9%) 응답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해상 물류 불안정’(23.6%→12.3%),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10.2%→7.5%)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16.5%→13.1%) 등은 전기에 이어 감소 추세를 이어감.

‘22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기업 수 520,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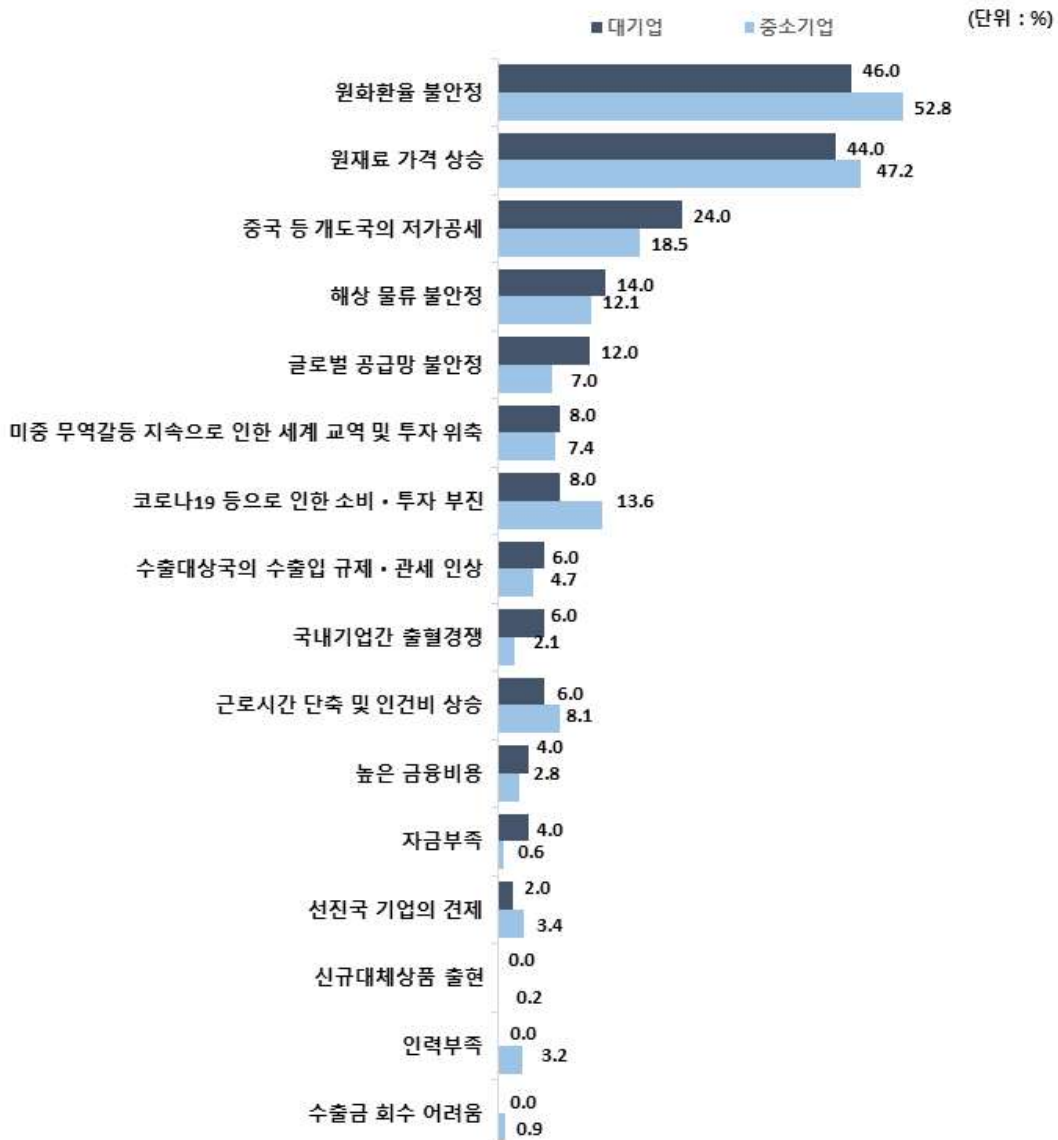
- (산업별) ‘원화환율 불안정’은 문화콘텐츠(70.0%), 섬유류(65.7%), 선박(63.6%), 석유화학(61.6%), 플랜트/해건(60.0%), 기계류(52.3%), 철강/비철금속(47.9%) 등에서 높게 응답
- ‘원재료 가격 상승’은 신재생에너지(62.5%), 선박(54.5%), 자동차(53.2%), 전기전자(52.7%), 기계류(51.4%) 등에서 높게 응답



- '해상 물류 불안정'은 해운 운송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17.8%), 자동차(17.0%)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신재생에너지(12.5%), 전기전자(10.8%) 등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38.0%→46.0%)과 중소기업(39.9%→52.8%) 모두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중소기업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원화환율 불안정',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률은 중소기업이 더 높았으나,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해상물류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응답률은 대기업이 더 높게 나타남.

'22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20,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원재료 가격 상승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	코로나19 여파로 소비투자 부진	해상물류 불안정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미중갈등 등으로 세계교역/투자위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전 체		52.1	46.9	19.0	13.1	12.3	7.9	7.5	7.5
규 모	대 기 업	46.0	44.0	24.0	8.0	14.0	6.0	8.0	12.0
	중 소 기 업	52.8	47.2	18.5	13.6	12.1	8.1	7.4	7.0
산 업	전 기 전 자	45.9	52.7	16.2	6.8	4.1	16.2	13.5	10.8
	기 계 류	52.3	51.4	24.8	11.0	11.0	9.2	7.3	6.4
	철 강 /비 철	47.9	43.7	26.8	18.3	12.7	9.9	8.5	5.6
	석 유 화 학	61.6	42.5	15.1	15.1	17.8	1.4	5.5	6.8
	자 동 차	51.1	53.2	10.6	8.5	17.0	8.5	7.4	9.6
	섬 유 류	65.7	34.3	25.7	22.9	5.7	2.9	2.9	8.6
	플랜트/해건	60.0	45.0	5.0	20.0	0.0	5.0	10.0	5.0
	신재생에너지	37.5	62.5	37.5	25.0	0.0	0.0	0.0	12.5
	선 박	63.6	54.5	27.3	18.2	4.5	4.5	9.1	4.5
	문화콘텐츠	70.0	10.0	10.0	10.0	0.0	0.0	0.0	10.0
	해 운	28.6	42.9	7.1	0.0	35.7	0.0	7.1	7.1
수출 지역	북 미	49.7	49.0	19.5	15.4	14.8	6.7	4.7	4.0
	중 국	47.3	43.0	21.5	12.9	7.5	9.7	12.9	9.7
	일 본	61.5	48.1	23.1	13.5	7.7	7.7	7.7	7.7
	유 로 존	62.3	40.6	17.4	13.0	13.0	10.1	7.2	7.2
	동 남 아	52.8	47.2	16.7	13.9	12.0	5.6	5.6	11.1
	중 남 미	23.1	61.5	30.8	7.7	7.7	7.7	7.7	15.4
	중 동	61.5	53.8	7.7	0.0	15.4	7.7	7.7	7.7

주 : 총 520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2년 10월 4일~11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20개 업체 (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70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	출	업	황
수	출	채	산
수	출	단	가
생	산	원	가
수	출	물	량
자	금	사	정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2년 1분기부터는 추정 모형 소폭 개정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기선행지수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	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실효환율
산업	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수요 기계수주액